

황종우 해수부 장관, 덴마크 페로제도 보건에너지부 장관과 면담

- 해양수산 분야 협력을 통해 양측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협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1일(목) 부산에서 에이디스 하르트만 니클라센(Eyðdis Hartmann Niclasen) 덴마크 페로제도 보건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 페로제도 : 1948년 이래 덴마크 자치령으로, 외교·국방을 제외한 분야에서 자치권 향유

황 장관은 이번 면담이 한 - 페로제도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의 물꼬를 트는 첫 상견례 자리로, 양측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페로제도는 풍부한 해양 자원과 우수한 수산업 역량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며, “스마트 양식, 수산물 교역,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 선박, 북극항로 진출 등에 대해 양측의 우호 협력 관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51-773-5330)
	국제협력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보경 (051-773-5342)